

두 개의 문화도시 국제회의를 통해 바라본 도쿄 2020 -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과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WCCS)

닛세이초연구소 연구이사 / 아트 카운슬 도쿄 위원회 위원
요시모토 미츠히로

◎ACCF 2018: 대도시의 문화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9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도시문화포럼(Asia Cities Culture Forum, ACCF)'이 개최되었다. 주최는 서울시, 기획 및 운영은 서울문화재단이 맡았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올해의 주제는 '문화의 집적 - 문화도시의 과제(Clustering the Culture; What would be the magnet?)'였다. 아시아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청두, 서울, 타이베이, 도쿄, 방콕, 홍콩 등 6 개 도시에서 16 명, 초청 강연자로 런던에서 1 명이 참가했다.

결코 규모가 큰 국제회의는 아니었지만, 3 일간의 프로그램은 아시아 대도시의 문화정책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에 대해 공통 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방향성을 도출하려는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의 자세와 의욕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다.

메인 이벤트인 공개 세미나는 공장과 창고로 사용되었던 대형 건물을 아트 공간과 카페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바이산(BAESAN)에서 개최되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0 명 가까운 청중이 모여 이번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엿보게 했다. 세미나장이 위치한 성수동 지구는 과거 수제화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폐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나 갤러리가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핫플레이스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과제를 다루는 새로운 기업들이 이곳에 거점을 두게 되면서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다.



ACCF 2018 의 공개 세미나 모습(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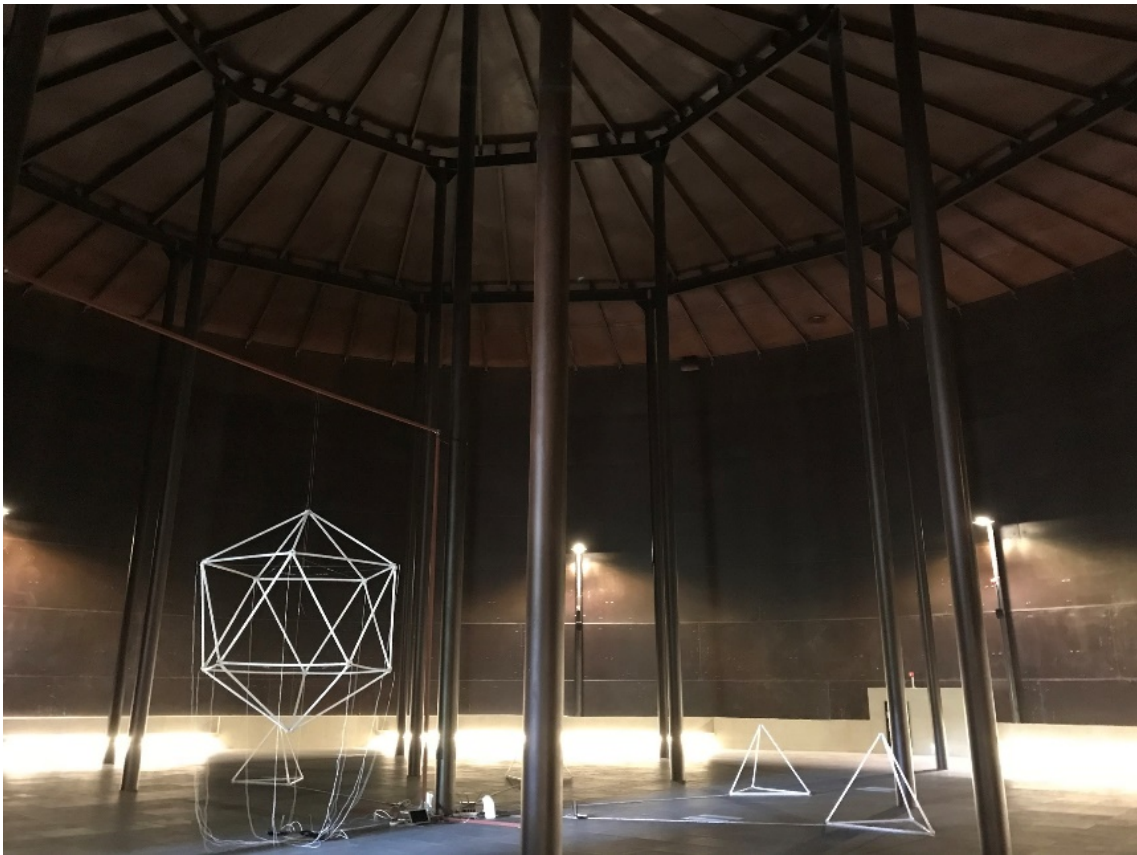
회의 주제에 맞춰 설정된 현장 투어 장소도 흥미로운 곳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 서부에 위치한 홍대앞 지구는 한국 최고의 미술대학인 홍익대학교 학생들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부터 서울의 서브컬처를 창조해 나가는 지역이다. 근래에는 젠트리피케이션*1의 영향으로 지역 전체가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라이브하우스나 스튜디오 등 문화적 공간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가 힘쓰고 있다.

서대문(돈의문) 주변은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에 인접해 있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인가를 받게 되면서 서울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인접 지구를 돈의문(敦義門) 박물관 마을로 정비하고 있다. 본 지구에 남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옛 주거지를 보존, 개조하여 박물관과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돈의문 전시관과 서울도시건축센터 등을 개설하여 널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비축기지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공원은 원래 1973년에 발생한 제 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6~78년,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건설한 석유비축기지였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석유를 다른 시설로 이전한 후 폐쇄되었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해 2013년에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그 결과 복합문화시설로 재건하기로 결정되었다. 문화공원으로 오픈한 것은 2017년이다.

5 개의 석유탱크는 이벤트홀과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탱크에서 뜯어낸 철판을 재활용하여 탱크와 동일한 모양을 한 커뮤니티센터도 신설되었다. 넓은 야외 공간과 함께 거대한 탱크 공간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 및 페스티벌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작년 ACCF 2017 때 방문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도 한강 취수장을 산업유산으로 보존하면서 아트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천장이 높은 거대한 공간은 서커스 예술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야외광장과 함께 서울 거리 예술의 거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재건한 이 두 개의 시설은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문화거점이며, 쓰키지 시장의 재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꼭 참고해야 하는 사례라 하겠다.



문화비축기지 T4(필자 촬영)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필자 촬영)

도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는 대형 도시개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아티스트의 창작 거점과 문화적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은 이러한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WCCS/WCCF: 런던 2012 대회의 문화적 유산

사실 ACCF 는 런던 2012 대회의 문화적 유산인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World Cities Culture Summit, WCCS)'가 계기가 되어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WCCS 는 현재 세계 각국의 40 개 도시가 가맹된 국제적 네트워크 조직인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2 의 회원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제 1 회 WCCS 가 당시 런던 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의 제창으로 개최된 것은 2012 년의 일이며 런던 올림픽 개막식 3 일 후인 7 월 30 일부터 8 월 1 일까지 진행되었다. 향후 대도시가 짊어져야 할 문화적 역할을 되짚어 본다는 것이 취지였고, 세계 12 개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한 'World Cities Culture Report 2012'의 발표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8 년, 뉴욕, 파리, 상하이, 도쿄 등 4 개 도시를 비교하고, 런던의 문화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정리하여 국제적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는 'London: A Cultural Audit'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이스탄불, 상파울루, 상하이, 도쿄, 뉴욕, 파리, 런던 등 12 개 도시가 참여하였다. 각 도시의 문화 현황이 각종 데이터에 의해 비교, 분석되었고 총회 개최 이후 도쿄도에서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3 12 개 도시 중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스탄불, 런던, 뭄바이, 뉴욕, 파리, 상하이, 시드니, 도쿄 등 8 개 도시이며, 도쿄는 WCCS/WCCF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보고서의 언론 발표회 때는 런던 올림픽 취재차 방문한 세계 각국의 매체가 초청되었고, NHK의 인터넷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2020년 하계 올림픽의 후보 도시인 이스탄불과 도쿄에 집중되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총회 기간 중에는 런던 올림픽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의 가이드 투어가 열리고, 만찬회와 오찬회는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책임자들과의 교류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참가 도시 간에 WCCS 존속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이스탄불이 차년도 개최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본 총회가 이어지게 되었다.



WCCS 2012 런던 시청사 최상층 'Living Room'에서 열린 환영 오찬회(필자 촬영)

결국, 런던 2012 대회 기간 중에 개최된 WCCS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영국과의 국제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대도시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제적 관점에서 참가 도시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진행된 것이었다.

2013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후, 암스테르담, 런던, 모스크바를 거쳐 2017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자칫 서구적 가치관에 편중되기 쉬운 WCCS와는 별도로 아시아만의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과감한 시도로 서울시가 개최한 것이 바로 작년에 진행된 ACCF였다.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에서 실천으로의 이행

WCCS 는 당초 참가 도시의 문화정책과 새로운 문화사업 등을 소개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형식의 국제회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 총회 때부터 세계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화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WCCS 에서는 문화 거점 만들기, 문화와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주제가 설정되어 워크숍 형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전자는 도시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아티스트의 창작 거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세계 대도시의 공통된 과제에 입각한 것이며, 후자는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접근법이 가능한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테마는 모스크바 총회에서도 다룬 바 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 정책과 실천 시리즈라는 핸드북도 제작, 배포되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이념과 힌트, 회원도시의 실천 사례를 정리한 책자이다.

또한, 작년 서울 총회에서는 'WCCF Leadership Exchange Programme'이라는 회원도시 간의 공동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각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회원도시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리서치 등을 진행하는 'One-way Leadership Exchange'와 두 개 이상의 도시가 상호 방문을 통해 공통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Two-way Leadership Exchange' 등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다. 회원도시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채택되면 여비 등의 경비가 WCCF 에서 지급되는 구조이다. 그 재원은 뉴욕의 블룸버그 전 시장이 창설한 블룸버그 자선재단과 구글 아트 앤 컬처가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WCCS/WCCF 는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에서 세계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2 년 런던 대회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국제회의가 그야말로 문화적 유산으로서 40 개 도시가 참가하여 협력하는 국제적 플랫폼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올해 11 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WCCS 에서는 'Leadership Exchange Programme'의 성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도쿄 2020 대회까지 2 년이 채 남지 않았다. 도쿄도의 문화 프로그램인 Tokyo Tokyo FESTIVAL 도 얼마 전 상징적 사업인 기획 공모 심사가 끝나고, 13 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문화 프로그램의 유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명확한 로드맵이 나왔다고는 하기 어렵다. 런던 2012 대회에서 시작된 WCCS/WCCF 가 6 년간 크게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일회성 문화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제도시문화포럼(WCCF)의 회원도시 사이에서는 도쿄 총회 개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작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후로는 각 도시의 부시장 등 행정기관

수장급 인사들의 참가도 늘어나고 있다. Tokyo Tokyo FESTIVAL 을 비롯한 도쿄 2020 대회의 문화 프로그램을 세계 문화도시의 대표자들에게 선보이고 도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2020 년 여름, 제 9 회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WCCS)를 도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1: 개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지역에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유층이 옮겨와 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와 상업 공간이 생겨나 지역이 활성화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기존에 있던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2: <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

*3: 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assets/others/wccr_2012_japanese.pdf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이사 / 아트 카운슬 도쿄 위원회 위원
요시모토 미츠히로**

1958 년 도쿠시마현 출생. 도쿄 오페라시티와 세타가야 퍼블릭 시어터, 이와키 예술문화교류관(알리오스) 등의 문화시설 개발, 도쿄 국제포럼과 덴쓰 신사옥 아트 계획의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한편, 문화정책, 문화시설의 운영 및 평가, 창조도시,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아웃리치 등의 조사 연구 추진. 현재, 문화심의회 위원, 도쿄 2020 조직위원회 문화·교육 위원, 도쿄예술문화평의회 평의원, (공익사단법인)기업 메세나 협의회 이사, (공익재단법인)국제문화회관 평의원, 문화경제학회 <일본>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2020 년. 전국에서 문화 제전을(닛세이 기초연구소 보고서)', '문화를 통한 부흥 - 시민과 지진 재해와 이와키 알리오스와(편저, 스이요사)' 등이 있음.

